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
배포일자		2023년 3월 28일(화) 총 2매		
담당 부서	글로벌도시기획과	담 당 자	• 글로벌도시기획팀장 김윤희 ☎440-3401 • 담당자 김지영 ☎458-7238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 전 기관, 아시아·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유치에 총력
- 28일, 인천 유치 지원 협의체(TF) 1차 회의 개최 -
- 내년 상반기 개최도시 선정 앞두고, “모든 역량 결집해 범시민적 관심 보이자”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025 아시아·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협의체(TF)를 구성하고,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아시아·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협의체(TF)는 인천시 등 유관기관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자 구성됐다.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시, 군·구, 교육청, 공사·공단 등 42명이 참여한다.

협의체(TF)는 올 상반기에는 인천 유치를 지원하는 홍보 활동을, 하반기에는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필요한 협력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, 군·구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모색하게 된다.

오늘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인천 유치 추진 경과 및 계획을 점검하

고, 유치 역량 결집 등 협의체(TF)의 목적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.

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“올해는 내년 상반기 개최도시 결정에 대비해 유치 총력전을 펼쳐야 할 중요한 해” 라면서, “인천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아시아·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유치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과 열망을 보여준다면 2025 정상회의 개최지는 반드시 인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” 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시작했으며, 올해는 체계적인 공모 절차 준비를 이어 나가는 동시에 대내외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.

<관련사진> 이미지

